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16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55)	봉헌 (215)	성체 (154)	파견 (135)
---------	---------	----------	----------	----------

<p>제1독서 사도 4,8-12</p> <p>화답송 시편 118(117),1과 8-9.21-23.26과 28-29(◎ 22)</p> <p>◎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또는 ◎ 알렐루야.)</p> <p>○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사람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제후들을 믿기보다, 주님께 피신함이 훨씬 낫다네. ◎</p> <p>○ 당신이 제게 응답하시고 구원이 되어 주셨으니, 제가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p> <p>○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찬송하나이다.저의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p> <p>제2독서 1요한 3,1-2</p> <p>복음환호송 요한 10,14 참조</p> <p>◎ 알렐루야.</p> <p>○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양들은 나를 안다. ◎</p> <p>복음 요한 10,11-18</p>	<p>성소를 위한 기도</p> <p>○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p> <p>●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p> <p>○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p> <p>●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p> <p>○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p> <p>●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p> <p>◎ 아멘.</p>
--	---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4/1	이 마틸다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4/8	이 그레이스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4/15	이 마틸다	이 바오로 / 김 유스티나	박 다니엘
4/22	유 요한	이 요한 / 김 헬레나	박 다니엘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245	\$95	\$37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24	황 가롤로/ 김 안드레아	3/31	유 요한/ 유 마리아
3/3	오 베드로/ 오 루시아	4/7	김 요아킴/ 고 안나
3/10	손 아놀드/ 손 쟈마	4/14	홍 마르코/ 홍 아녜스
3/17	이 글라라/ 장 글라라	4/21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3/24	이 요한/ 이 마틸다	4/28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5 월 3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둘째 주 일요일 오후 7 시 다음 회의는 5 월 13 일 둘째 주에 하게 됩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목요일 오후 8 시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성경공부: 매주 주일미사 후

매주 해당 성경말씀을 필사하여 그것을 통독하고 나눔을 갖습니다. 장소는 천교실 입니다.

소 공동체 모임: (매달 셋째 주일 미사 후)

다음모임은 5 월 20 일 미사 후 있겠습니다.

공동체 가족 변경사항

오베드로 형제님과 오루시아 자매님이 이사를 가셨습니다. 김안드레아 형제님이 4 월 25 일 뉴욕으로 이주 하십니다. 다른 곳으로 가시는 형제, 자매님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첫 영성체 축하합니다 4 월 21 일 토요일 9 시

손아놀드 형제 / 손쟈마 자매 의 자녀 손지호(데레사), 손태호(알렉산더) 의 첫 영성체식이 어제 있었습니다. 축하와 격려 그리고 앞으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아내는 나의 힘

-이상호 비오 -kBS 아나운서-

아내와 얘기하면서 아내가 진정으로 본질에 집중하고 있다는걸 알게 됨. 난 사실 본질을 이리저리 돌아가며 그 핵심을 보지 않으려 피하고 있다는 걸 돌아봄. 있는 그대로의 상황과 존재 자체로서의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건 은총. 그런 시선이 아내에게 있어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함.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청함. 본질이 아닌 주변부를 맴돈다는 건 그만큼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것이란 생각이 듦. (2017년12월의 추운 어느 날)

가끔씩 썼던 일기를 뒤적이다 아내에 대한 일기를 보게 됐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땐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닥친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모면하려 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제 기준대로 판단하고 본질보다는 허상을 좇고 있는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돌아볼 수 있게 한 아내가 제 곁에 있다는 게 다행이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10년을 함께 하면서도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아내의 진면목은 이렇습니다. 아내는 정직합니다.

없는 걸 있다고 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아픈 둘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아내는 무척이나 담담하게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아이를 사랑하면 된다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을 밀어내면 안된다고. 저를 다독이며 위로했습니다. 아내에게 고마웠고

그런 아내를 제게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단순합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잡니다. 아무리 힘들고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이 일어나도 신기하리만큼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제힘으로만 해결하려 애쓰는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아내를 보고 있노라면 이따금 경외감마저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어찌면 주님께서 제게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내를 통해서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 말라고 그저 내 안에서 기뻐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아내는 따뜻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내는 항상 이왕이면 기쁜 마음을, 좋은 기운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려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사람은 이러니까 싫다 연락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더니 제게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면 당신은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없다'고 충고하더군요. 직업상 아내보다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들을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전 아내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어진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삶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기쁘게 살아가려 애쓰는 아내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내를 통해 만난 예수님을 이제 살아가는 매 순간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_서울주보에서_